

진도군 300억 투입 '신비의 바닷길 랜드마크' 조성

진남형 균형발전 300 공모 선정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

문화예술 접목 성장 동력 창출해 청년 유입...지역소멸 위기 대응

진도군이 '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진경(珍景)-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비 180억원을 포함,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화동관광지 일원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군은 화동관광지에 있는 노후시설인 홍주하우스 부지에 진도군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과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를 접목한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수련원을 청년 문화예술가와 기술가들이 모이는 청년 웰컴센터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홍주현(가칭)에는 진도 문화예술의 정수와 첨단 미디어아트를 융복합한 공연장과 미디어 테크를 활용해 신비의 바닷길 위에 펼쳐지는 신비의 하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진도의 비교

우위 자원인 문화예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 청년들이 미래기술과 바다기술로 일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위케이션 캠프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가계해변 일대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가계 비치스토어 공간을 설치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과 동시에 관외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관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진도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진경(珍景)-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 사업계획도.

영농·거주 체험...해남서 살아보기 인기 만점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들이 현산면 풀내음 힐링캠프 숙박지에서 진행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현산면 풀내음 힐링캠프 최장 3개월 무료

"해남에서 무료로 살아보세요."

해남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실제 이주 전 희망 지역에서 최대 3~6개월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현산면 풀내음 힐링캠프 숙박지

에서 5가구, 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월 30만원의 연수비 지원과 함께 임시숙소에서 최장 3개월간 무료로 머무를 수 있다.

이들은 영농 일자리 체험, 지역 탐색, 귀농·귀촌인 농가 방문, 지역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농촌살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교류로 농촌이

주에 대한 두려움을 덜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돕는 좋은 계기가 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 온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해남군 청년 창업 플랫폼 '해남사내 공유주방'에 취업해 장기 정착과 창업을 꿈꾸게 됐다고 해남군은 전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연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해남군 정착을 유도해 지역 활력과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신안서 멸종 위기 '여름새우란' 감상

5~20일 1004 뮤지엄파크서 전시회...100여점 출품

신안군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자은면 1004 뮤지엄파크에서 한여름에 피는 여름새우란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와 신안군새우란연구회에서 보유한 한국과 일본의 여름새우란 원종 100여점과 풍란, 흑산비비추 등 도서 자생식물을 함께 선보인다.

관람객들에게 멸종위기 새우란 등 자생식물 홍보와 여름새우란 전시를 기념하고자 특별한 새우란 소재 기념품도 판매한다.

새우란은 먹는 새우의 알이 아닌 고귀하고 은은한 향을 지닌 자생란의 종류로 새우란의 뿌리가 새

우의 등을 닮았다고 해 새우란이라 이름 붙여졌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새우란은 모두 봄에 꽃을 피우는데 여름새우란만 유일하게 7~8월에 꽃을 피우며 향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제주도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생란 생산 기반 구축 사업 등 지역 내 자생란 생산 선도농가 육성으로 소득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여름새우란

영암물에서 신안 전복·민어 30% 할인

'영암물×신안1004물' 협업 기획전...한 달간 한우 등

영암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신안군과 협업을 통한 '영암물×신안1004물' 기획전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협업 기획전은 영암군 온라인쇼핑몰인 '영암물'에서 신안군의 '신안1004물'의 대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판매 품목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에 기운을 더해주는 한우와 전복, 민어 등이다.

영암물에 방문하면 영암 대표 축산물인 매력한우와 신안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민어를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협업 기획전은 영암군이 농축특산물 인지도 향상과 판매증대를 위해 다른 지역과 추진한 첫 성과물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정정지역에서 자란 매력 한우와 서남해안 정정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더 많은 협업전으로 상생 경제의 모범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우리 문화재 태극기 바로알기
DJ노벨기념관 15일까지 특별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주최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태극기 바로알기' 특별전이 1일부터 15일까지 컨벤션동 1층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이전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문화재로 등록된 우리나라 태극기 17점이 전시된다.

기념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를 포토존으로 만들어 포토존 이벤트, 나라의 태극기 머그컵 만들기(어린이 대상 광복절, 주말 운영), 태극기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무안 미용업소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

25곳에 각각 최대 70만원

무안군이 지역 미용업소 25곳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했다.

'미용업소 영업시설(공기청정기) 비용지원 사업'은 여름철 공중위생업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미용업소이다.

업소당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의 80%(자부담 20%), 최고 7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소에 뽑히거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주기적으로 미용 봉사활동을 한 업소가 먼저 선정됐다.

무안군은 21개 업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5곳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연숙 미용협회 무안군지부 회장은 "머리카락 때문에 여름철 환기가 어려운 미용업소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무안 한 미용업소 모습. <무안군 제공>

영광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집중 접수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한도 20억→30억원으로 증액

영광군이 주민참여예산을 크게 늘리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영광군은 읍·면 지역사업 한도액을 2023년 20억원에서 2024년 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영광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개 기관·사회단체 200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왔다.

이곳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 방법을 교육했다.

영광군은 7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

에 걸쳐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 7월 한 달간 접수된 제안서는 36건이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영광군 누리집(yeonggwang.go.kr)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지방보조금 사업, 특정단체·특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되므로 신청하는 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청 접수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세얼굴

"예방적 치안활동으로 '평온한 완도' 최선"

김광철 완도경찰서장



"지역민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평온한 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1일 부임한 김광철(58) 완도경찰서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 맞춤형 민생치안을 위한 소임을 다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서장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민생을 침해하는 요소를 꼼꼼히 살펴 '예방적 치안활동'을 펼쳐 기본질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항상 직권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소통하는 힐기찬 조직문화를 살려 민생안전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과 지역민의 믿음직한 경찰의 역할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김 서장은 이어 "특히 도서지역의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살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보태 민생안전에 대한 지혜롭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해남 송지면 출신인 김 서장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 간부후보 42기로 1994년 4월 경찰에 입문했다. 2013년 2월 인천지방경찰청 중부서 경무과장을 거쳐 2017년 서울청 중랑서와 동작서, 용산서, 종로경찰서 정보안보 외사과장을 역임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